

# 가까이 더 가까이, 멀리 더 멀리

(사도행전 11:19-26)

## ✚ 말씀 나누기

1. 나는 요즘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기 위해 예배, 말씀, 기도 가운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습관이나 방해 요소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내 안에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는 ‘~만’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내가 편한 사람만’이라는 익숙함을 넘어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한 가지 결단과 위로·격려·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정해 봅시다.

## ✚ 함께 기도하기

### 1. 주님 곁에 굳건히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품에 굳건히 머물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 깊이 닿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 2. 복음을 들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복음을 익숙함과 편견의 울타리를 넘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며, 외롭고 소외된 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 손을 따뜻하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지역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흠어지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 ✚ 찬양하기

### 내 주의 나라와(208장)



|      |   |   |   |     |     |     |    |   |
|------|---|---|---|-----|-----|-----|----|---|
| 1. 내 | 주 | 의 | 나 | 라-와 | 주-계 | 신-성 | 전과 | 피 |
| 2. 내 | 주 | 의 | 교 | 회-는 | 천-성 | 과-같 | 아서 | 눈 |
| 3. 이 | 교 | 회 | 위 | 하-여 | 눈-물 | 과-기 | 도로 | 내 |
| 4. 성 | 도 | 의 | 교 | 제-와 | 교-회 | 의-위 | 로와 | 구 |
| 5. 하 | 늘 | 의 | 영 | 광-과 | 배-푸 | 신-은 | 혜가 | 진 |



|   |   |   |   |   |   |   |   |   |     |   |   |
|---|---|---|---|---|---|---|---|---|-----|---|---|
| 흘 | 려 | 사 | 신 | 교 | 회 | 를 | 늘 | 사 | 랑-합 | 니 | 다 |
| 동 | 자 | 같 | 이 | 아 | 끼 | 사 | 늘 | 보 | 호-하 | 시 | 네 |
| 생 | 명 | 다 | 하 | 기 | 까 | 지 | 늘 | 봉 | 사-합 | 니 | 다 |
| 주 | 와 | 맞 | 은 | 언 | 약 | 을 | 늘 | 기 | 뻐-합 | 니 | 다 |
| 리 | 와 | 함 | 께 | 영 | 원 | 히 | 시 | 온 | 에-넘 | 치 | 네 |

아멘

## 도입 | 가까이와 멀리, 제자의 두 방향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셔서 먼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였고, 이후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께 가까이 머물면서 동시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본론 1 |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곁에 굳건히 머무는 교회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먼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먼저 주님 곁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의 배가 닻을 깊이 내리듯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주님께 굳건히 붙어 있을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품에 굳건히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본론 2 |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 담장을 넘어 나가는 교회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점차 그 울타리를 넘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에서 ‘헬라인에게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의 익숙함과 편견의 담장을 넘어설 때 주의

손이 함께하시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멀리 간다는 것은 지역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홀로 있던 사울을 찾아가 세워준 것처럼 우리 주변의 외롭고 소외된 한 사람, 복음과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본론 3 | 가까이 더 가까이 멀리 더 멀리 그리스도인의 두 걸음

한 발로 오래 걸을 수 없듯 우리의 신앙도 두 걸음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걸음이며, 다른 한 걸음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과 선교의 걸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이 두 걸음을 함께 걸었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선교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이 땅까지 멀리 오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결론 |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에 굳건히 머물고,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그 은혜를 품고 가정과 이웃, 지역과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촌교회가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 나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